

2020 EBS 연계 실전 모의고사 3회

국어 영역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

모의고사 풀이 후 행동 강령 7단계

- ① 평상시처럼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풀기.
- ② 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틀렸을 것 같은 것을 재검토하기.
(단, 다른 색 펜으로 사용할 것)
- ③ 채점을 한 후, 다른 색 펜으로 지문 전체에 엄쌤에게 배운 방식대로 "밑줄과 요약 정리"를 시작하기.
- ④ 모든 문제에 정답 근거를 찾아오기.
- ⑤ 오답노트 작성하기.(오려 붙이기 금지, 지문 독해형 오답노트 금지)
- ⑥ 재검토 전의 점수와 재검토 후의 점수를 나눠서 기재하기.
- ⑦ 각 영역별(고전시가, 현대시, 철학, 과학 등) (틀린 개수/전체 개수) 적기
(예) 현소1/4, 과학2/5, 문법1/5 등

엄태욱 국어연구소

〈스터디케이 & 나다어 & 국권학원〉

[01~0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식품 연구가 A입니다. 저는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소는 물론 여러분의 식생활과 식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먹는 것에 관심이 많게 생겼나요? (웃으며) 오늘은 여러분을 만나러 온다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혹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여러분 또래인 제 주변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질문에 많은 학생이 요즘 대세는 ‘이것’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음식 관련 방송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답을 들은 후) 네, ‘떡방’ 입니다. 정말 다양한 떡방이 있더라고요. 대표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는 방송, 소리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도 있고 무작정 많이 먹는 방송도 있더라고요. 예전 방송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먹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죠. (떡방 영상 시청) 무엇을 보셨나요? (대답을 들은 후)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누구나 쉽게 구입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데 정말 맛있어 보이죠. 아마 지금쯤 오늘 저녁은 이것으로 먹겠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떡방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간편식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 더욱 다양해지고 친숙해진 음식! 편리해서 더 맛있는 음식! 간편식의 정의, 종류, 간편식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간편식의 활용 사례 등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이 선호하면서 간편식 시장이 아주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간편식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식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대답을 들은 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영상을 보며) 혹 모르시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하려 이렇게 준비했는데 잘 알고 계시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간편식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웃으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참 많이 접하고 친구들과 주말에 함께 먹는 경우도 많던데 그런가요? 어떤 것들을 드셔 보았나요? (반응을 살핀 후) 역시 다양한 종류를 알고 계시네요. 그럼 종류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간편식은 정말 한 끼를 때우기 위한 인스턴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위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시간 이상 걸리던 갈비찜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2분 30초 만에 똑딱, 먹고 싶었던 찌개도 3분 안으로 똑딱, 그 맛도 아주 좋아졌죠.

㉣먹는 얘기를 계속하니 배고프시죠? (웃으며)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간편식에 대한 선호와 위상이 달라진 것은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간편식으로 나온 음식들은 맛이 떨어지고 종류도 많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 했는데, 지금은 직접 요리한 것 못지않은 맛과 편리함으로 많은 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한 몫한 것이 바로 포장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전의 포장 기술은 장기적인 유통 기한 확보에만 초점을 두

어 조리된 식품의 맛을 변화시킨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선도와 영양, 맛을 모두 살리면서 유통 기한까지 확보하는 것을 기술의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식품마다 재료의 특성에 따라 최고의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포장 기법이 다릅니다. 가령 콩나물은 운반 과정에서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하려 미세한 구멍이 뚫린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이 포장재는 환경 조절 포장으로 불리는 기술이 적용된 것인데 내부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 탄소배출량 등의 균형을 구멍으로 조절해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성장 속도를 늦춥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도 활발한데 간편식이 주로 전자레인지로 사용하는 만큼 전자레인지 활용 관련 신기술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진은 식품 내 수분을 이용해 가열하는 방식이어서 가열하면서 수분이 증발하면 음식이 딱딱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처럼 포장재의 일부를 뜯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포장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자동 증기 배출포장’ 은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내부의 증기를 포장지 밖으로 배출시키죠. 반대로 찜기처럼 오히려 용기안에 증기가 발생하도록 해 식품을 찜낸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기술도 있습니다. 식품의 여러 특성과 조리 방법에 따라 자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 옷을 입게 된 것이죠.

또 간편식은 열악한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간편식의 편의성이 가장 부각되는 장소가 군대인데요, 얼마 전 군대 관련 TV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을 때 전투 식량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맛도 맛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겐 줄을 당기면 바로 발열되는 전투 식량이 무척이나 신기했겠지요. 여러 단계를 거치며 즉각 취식형 전투 식량으로 개발된 간편식은 발열팩이 부착되어 줄을 잡아당기면 급속도로 발열이 시작돼 100도에 가까운 온도로 내부 식품을 데웁니다. 어떻게 열이 나는지 궁금하시죠? 화학 시간에 배운 학생들도 있던데 철과 마그네슘으로 구성된 발열체가 소금물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줄을 잡아당길 때 발열 용액 봉지가 찢어지며 물이 새어 나오고 이때 발열반응이 시작되는 것이죠.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어디가 생각하시나요? 절대 배달이 있을 수 없는 곳! 마트도 없는 곳! 네, 우주 공간에서의 식사입니다. 우주식은 간편식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주식은 밀폐가 필수이며 유통 기한 또한 최소 9개월에서 최대 3년입니다. 또 지구의 세균이 우주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멸균 또한 필수이며 오래 보존하고 발사 중량을 줄이기 위해 수분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먹나 궁금하시죠? 포장된 채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 음식을 데우는 대류 오븐에 넣어 데운 후 가위로 윗부분을 잘라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우주인의 식사를 책임지는 대류오븐은 최대 80도까지만 열을 올릴 수 있어 식품을 데울 뿐 물을 끓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장 기술의 발달로 김치는 물론 수정과, 호박죽, 닭갈비 등 한식 24종을 우주 식품으로 개발했습니다.

㉤한식을 우주에서 먹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부터 간편식을 먹을 때마다 군대와 우주가 떠오를 것 같죠? (웃으며) 아마 장담하건대 오늘부터 간편식을 드실 때면 포장 용기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늘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라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강연자가 위 강연을 계획하며 생각한 내용이다.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강연은 청중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니까 청중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지. 내용 구성 전에 미리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거나 친숙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지 조사를 해야겠어. 그리고 최근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전문 기관의 조사 자료를 활용해 설명하면 학생들이 강연 내용을 더욱 신뢰하겠지. 그리고 학생들이 강연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 내용 순서를 안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어. 특히 새로운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는 ㉣기존 기술의 단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어. 또한 ㉤장기적 유통 기한 확보를 위한 포장 기술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례를 제시할 때에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과 강연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에 해당하는 질문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강연에서 질문은 강연 중간중간 청중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답변이나 의외의 답변이 나왔을 경우 답변 내용을 공유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물음의 형태로 그 내용을 다시 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강연자는 ㉠청중의 배경지식이나 경험 정도를 살펴 강연 내용의 수준이나 구성을 조절하기 위해 질문을 사용하기도 하며, 자신의 주장이나 강연 내용의 중요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3.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며 강연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기록한 메모이다. 강연 내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자레인지 사용해 음식 데우면 왜 딱딱해질까?
가열 시 수분이 증발하면 음식이 딱딱해지는구나.
현재 포장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
신선도와 영양, 맛은 물론 유통 기한을 확보하는 것이구나.
식품마다 포장 기법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재료의 특성을 고려해야 최고의 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구나.
전자레인지나 가스의 사용 없이 100도 이상의 온도로 식품을 데울 수 있을까?
화학 반응을 활용한 발열 팩과 우주에서 사용하는 대류 오븐을 사용하면 가능하구나.
한식 중 우주식으로 가능한 식품이 있을까?
김치, 수정과, 호박죽, 달걀비 등 많은 음식이 있구나.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4~07] (가)는 어느 회사의 사내광고 초안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광고 담당자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위라벨을 아십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OO도 '일인 삶'과 '일이 아닌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무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면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게 가꿀 수 있고, OO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나)
팀장: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회사의 근무 시간 단축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 문화 개선을 위한 광고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회의 때에는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위라벨'을 광고에 담자는 데 의견이 모였...

고, 그에 따라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과 함께 수정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팀원 1: 초안은 ‘워라밸’이라는 표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도 근무 시간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침을 결정했지만, 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구별하자는 메시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B]

팀원 2: 그것보다는 사원들이 근무 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를 말하는 내용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휴식, 취미 활동, 자기 계발처럼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하며 업무로부터 잠시 떨어지는 시간을 갖자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팀원 3: 요즘 사람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회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표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팀장: 세 분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방안을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팀원 2: 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구별하자는 메시지를 명시하자는 의견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광고에 부각되면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는 광고를 볼 때마다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원 1: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광고에 담긴 의미 전달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구분하자는 내용을 명시하는 대신 퇴근 후 시간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겠습니다.

[C]

팀원 3: 맞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퇴근 후 시간에 대한 실천 계획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팀원 1: 근무 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내용을 부각하자는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팀장: 의견이 모인 것 같군요. 여러분이 모두 동의하신 의견에 추가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광고문에 포함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떨습니까?

팀원 1, 3: 좋습니다.

팀원 2: 저도 좋습니다. 초안의 마지막 문장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어떨습니까?

팀원 1: 동의합니다.

팀원 3: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표제를 제외한, 본문의 문장은 초안의 마지막 문장처럼 조건과 관련되는 연결 어미를

활용하고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도록 형식을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팀원 1, 2: 좋습니다.

팀장: 그럼 지금까지 팀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광고문을 수정해 주세요. 광고문이 바뀌면 당연히 그에 맞추어 그림도 바뀌어야 할 겁니다. 수정안이 완성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칩니다.

4. 다음은 (가)를 작성하기 전에 실시한 ㉠의 결과를 메모한 것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광고 그림

- ✓ 시간과 균형을 각각 의미하는 소재를 활용한 그림 ①
- ✓ 일과 개인의 삶을 대변하는 건물 그림 ②

○ 광고문에 포함할 내용

- ✓ ‘워라밸’의 뜻 ③
- ✓ 우리 회사의 근무 방식 및 문화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사례 ④
- ✓ 근무 방식 및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 ⑤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5. (나)에서 ‘팀장’의 역할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의 참여자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며 추가 발언을 요구하고 있군.
- ② 회의 참여자가 발언한 내용들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며 의견을 종합하고 있군.
- ③ 회의 참여자가 발언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며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군.
- ④ 회의 참여자가 발언할 내용을 한정하고 참여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군.
- ⑤ 회의 참여자가 발언할 내용을 제시하고 참여자들 간의 대립에 대해 중재안을 제공하고 있군.

6. [B], [C]에 제시된 발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의 ‘팀원 2’의 발언에는 [B]의 ‘팀원 1’의 발언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있다.
- ② [C]의 ‘팀원 1’의 발언에는 [C]의 ‘팀원 2’의 발언을 토대로 [B]의 자기 발언을 수정한 내용이 있다.
- ③ [C]의 ‘팀원 3’의 발언에는 [C]의 ‘팀원 1’의 발언에 동조하며 [B]의 자기 발언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있다.

- ④ [C]의 ‘팀원 1’ 과 ‘팀원 3’ 의 발언에는 [B]의 ‘팀원 2’ 의 발언에 담긴 제안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 ⑤ [C]의 ‘팀원 2’ 와 ‘팀원 3’ 의 발언에는 [B]의 ‘팀원 1’ 의 발언에 담긴 주장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

7. (나)를 고려할 때, [A]의 수정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라벨을 실천하기 원하십니까? 여가 시간을 확보한다면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자기 계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② 우리 OO의 일과 삶에 균형을 주세요.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올 여러분의 취미를 떠올리고 함께할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 ③ OO에도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균형이 있는 삶도 가능하고, 저녁이 있는 삶도 가능합니다.
- ④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면 퇴근 후 시간에는 업무에서 멀어지고 자신을 위한 활동과 가까워주세요.
- ⑤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아 드립니다.
일과 삶의 균형, 근무 시간만큼 여가도 중요합니다. 퇴근 후의 시간은 자신을 위한 활동에 할애하세요.

[08~10] 다음은 청소년 의회 교실의 개최를 축하하는 식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부장: 작년에 이어 올해 동아리 모집에서도 우리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동아리는 사라지는 분위기 속에서 인문학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우리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원인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1: 저는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우리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적합한 동아리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인문학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무작정 진로와 관련이 있을 것만 같은 이름을 가진 동아리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2: 네. 작년 학교 축제에서도 우리 동아리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연히 자신의 진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은 물론 인문학을 탐구한다는 말이 무겁고 재미없게 느껴져 학생들이 기피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1: 우리 동아리의 활동들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진로 활동과 연관된 내용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에 동의합

니다.

학생 3, 4: 동의합니다.

부장: 네.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3: 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 하지만 선배들이 작성한 동아리 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보고 관심을 가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아리 모집 공고문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진로 활동을 포함하여 우리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학생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4: 동아리 모집 공고문도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고문에 활동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될 경우 오히려 학생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여겨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 공고문을 자세하게 읽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 축제가 동아리와 관련된 가장 큰 행사이니, 축제 기간을 활용해 동아리를 홍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 모집 공고문을 잘 작성하는 것과 학교 축제 활용 방법, 둘 다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1: 어떤 방식이든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모집 공고문은 지면에 한계가 있고 많은 글자를 넣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우리 동아리 활동 내용을 알려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2: 학생들의 관심을 끌려면 축제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축제에서도 기존과 같은 동아리 홍보 방식을 활용하면 일회성 홍보가 되기 쉬워 우리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장: 학생들의 관심을 끌려면 축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일회성 활동을 줄이고 동아리 활동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학생 2: 기존의 동아리 홍보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동아리 활동 내용 중심으로 홍보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1, 3, 4: 네. 좋습니다.

부장: 그럼 이번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3: 지금까지 우리 동아리는 문학 작품을 전시하고 문학 퀴즈를 내서 맞히는 학생들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상품을 받으려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했으나 우리 동아리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지는 않았고 저희도 동아리 활동 내용을 안내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먼저 우리 동아리 활동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각 항목의 활동 내용과 결과물들을 차례로 작성하여 우리 동아리 부스에 전시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모집 공고문을 작성한다면 축제와 동아리 홍보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준비할 수 있어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 4: 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인문학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활동 외에도 봉사 활동, 서점방문, 작가와의 만남, 동아리 선배와의 시간 등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에 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동아리 가입 방법을 묻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진 자료와 결과물들을 활용해 전시하고 안내했으면 합니다.

학생 1, 2: 네. 좋습니다.

8. 위 토의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1은 유사한 사례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② 학생 2는 논의의 복잡성을 들어 후속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④ 학생 4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⑤ 부장은 토의 주제에서 벗어난 참여자에게 토의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토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의 활동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함.
- ② ㉠: 모집 공고문이 진로 탐색 관련 내용에만 국한되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함.
- ③ ㉡: 축제에서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이벤트들을 기획함.
- ④ ㉡: 축제 기간 중 학생들이 직접 문학 토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동아리를 홍보함.
- ⑤ ㉡: 문학 퀴즈 등 학생들이 축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성을 계획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기획함.

10. <보기>는 부장이 토의를 준비하며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토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이번 토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토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겠어. 참여자들이 고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의 시작 부분에서 미리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안내하면 토의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모호한 내용에 대해선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내가 이해한 바가 정확한지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학생들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해야겠어.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11. 다음은 보조 용언의 의미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구한 내용이다.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함께 쓰여 그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건이나 행위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정의 의미 역시 보조 용언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① ㉠: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 ② ㉠: 어제 말한 책은 사 났어.
- ③ ㉡: 장미가 시들어 가네.
- ④ ㉡: 지금 학교로 가고 있어.
- ⑤ ㉢: 두 사람은 친구인가 보다.

12. 예문 ㉠~㉣에 대해 모듈별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 탐구할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모듈은?

㉠ 아버지가 키가 아주 크시다.
 ㉡ 백화점이 구두가 만 원이 싸다.
 ㉢ 영미는 짜장면을 세 그릇을 주문했다.

- ① 1 모듈: ㉠~㉣에서는 한 문장에서 동일한 조사가 여러 번 사용되었어. 이유를 알아보자.
- ② 2 모듈: ㉠에서 ‘키가 아주 크시다’는 서술절이라고 하던데, 서술절이 무엇일까?
- ③ 3 모듈: ㉡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자.
- ④ 4 모듈: ㉠과 ㉡에서 ‘아버지’와 ‘백화점’을 설명하는 관형사절을 분석해 보자.
- ⑤ 5 모듈: ㉢에서는 조사 ‘을’이 결합한 두 문장 성분의 관계를 살펴보자

13.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학습 활동)									
목표	부사격 조사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문장 만들기								
방법	아래 '목록'의 조사를 사용하여 예문 만들기								
목록	부터, (으)로, 보다, (으)로서, 에서								
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의미</th> <th style="width: 50%;">예문</th> </tr> </thead> <tbody> <tr> <td>도구</td> <td>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td> </tr> <tr>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의미	예문	도구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	㉡	⋮	⋮
	의미	예문							
	도구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	㉡							
⋮	⋮								

	㉠	㉡
①	근거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
②	방향	나는 골목길로 발길을 돌렸다.
③	이유	우리 반보다 인원이 많으니까 유리하지.
④	방법	모둠장으로서 나는 역할을 다했다.
⑤	출발점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14. <보기>의 ㉠~㉤에 나타난 문장의 중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예쁜 언니의 목걸이를 빌리고 싶었다.
㉡	나는 어제 친구와 친구 동생을 만났다.
㉢	누나가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	8시가 되자 형은 동생에게 옷을 입게 했다.
㉤	그때 오빠는 새로 산 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 ① ㉠: 관형어 '예쁜'이 수식하는 것이 '언니'일 수도 있고, '언니의 목걸이'일 수도 있다.
- ② ㉡: '나와 친구'가 '친구 동생'을 만난 경우와 '나'가 '친

- 구와 친구 동생'을 만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 '누나가 모자를 쓰지 않고 학교에 갔다.', '누나가 모자를 쓰고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갔다.'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 형이 동생에게 옷을 입혀 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형이 동생에게 옷을 입게 지시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 ⑤ ㉤: 구두를 신고 난 후의 상태의 유지를 의미하는 완료상 또는 구두를 신는 동작 중임을 나타내는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 <보기>를 참고할 때, 인용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용절이란 남의 말이나 글, 생각 따위를 옮겨 와서 다른 문장에 안긴 절을 말한다. 자신의 말이나 생각도 인용절로 표현할 수 있다. 인용절은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나뉜다. 직접인용절은 남의 말이나 글, 또는 생각을 표현한 문장을 그대로 따오는 것을 말한다. 간접 인용절은 남의 말을 그대로 따오지 않고 화자의 관점에 따라 변형하여 따오는 것이다. 이때 인용절의 주어는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생략될 수 있다.

(가) 영수: “나 민희 좋아해.”
 (나) 영수는 나에게 “나 민희 좋아해.”라고 말했다.
 (다) 영수는 나에게 자기가 민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가)는 영수가 한 말이다. 영수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나)는 직접 인용절을 안은문장이고, (다)는 간접 인용절을 안은문장이다. (가)에서 영수가 한 말은 인용절의 내용이 되는 말로 피인용문이라 하고, (나)와 (다)의 '라고'와 '고'는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말하다'는 인용 동사로, 인용절을 포함하고 있는 안은문장의 서술어를 말한다. 인용 동사로는 주로 말하는 행위와 관련한 동사들이 사용된다.

- ① (나)의 인용절을 안은문장에는 동사 '이야기하다, 소리치다' 등이 사용될 수 있다.
- ② (다)의 인용절에서 '자기가'는 생략될 수 있다.
- ③ (나)와 (다)의 인용절에서의 주어는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 ④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은 피인용문이 누구의 말인지에 따라 구별된다.
- ⑤ 조사 '라고'는 직접 인용절에, '고'는 간접 인용절에 사용된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공 지능의 발달로 언젠가는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는 로봇이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는 로봇은 과연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그냥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한지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한다’는 것의 판단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똑같은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논쟁은 제자리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영국의 수학자인 튜링은 모방 게임을 변형해서 ‘튜링 테스트’를 고안함으로써 생각한다는 것의 기준을 제시했다. 모방 게임은 질문자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과 요즘의 채팅처럼 필담으로만 질문을 주고받아 누가 여자인지 맞히는 게임이다. 방에 있는 남자가 최대한 여자인 척해서 질문자가 어느 쪽이 여자인지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그 남자는 여자를 모방하는 게임을 통과했다고 말한다. 튜링 테스트는 모방 게임에서 여자인 척하는 남자를 사람인 척하는 기계로 바꾼 것이다. 질문자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사람인지 알아내야 하고, 기계는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대답을 함으로써 질문자가 맞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다시 말해서 질문자가 답변자가 기계라는 것을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된다고 튜링은 생각했다.

튜링 테스트는 철학에서 물질과 정신 상태의 관계에 관한 이론인 동일론, 이원론, 기능론 중 기능론을 전제하고 있다. 동일론은 정신 상태가 물질로 이루어진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고, 이원론은 그 둘이 별개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에 비해, 기능론은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시계는 태엽이나 전자 회로나 심지어 모래와 같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지만 시계를 시계이게끔 하는 것은 그 재료가 아니라 지금 몇 시인지 측정하는 기능인 것처럼, 정신에 대해서도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기능론은 이처럼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기능적, 인과적 역할로 정신을 정의한다. 인공 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과 물질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기능론적 사고방식이다.

과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가 있을지 없을지 누구나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험적 질문과 별개로 튜링 테스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 개념적인 질문도 던져야 한다. 곧 생각할 수 있는 기계만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계라면 모두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튜링 테스트가 적절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첫째, 침팬지나 돌고래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아마 이 동물들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질문자가 어떤 물건을

들고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사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능력도 생각의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튜링 테스트는 언어적인 능력에만 주목하기에 그런 감각 능력이 없어도 통과할 수 있다. 기계는 물어보는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기계는 결국 생각을 시뮬레이션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비판이다. 이는 사람의 소화 과정을 모의실험한 시뮬레이션이 진짜 소화 과정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우리는 어떤 사람의 대화와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내부 구조를 알 수 없고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대화와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는 튜링 테스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 ② 남자가 모방 게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 낼 수 있어야 한다.
- ③ 이원론과 기능론은 정신 상태는 뇌의 상태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④ 기능론은 인간과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해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 ⑤ 동일론은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 상태가 우리와 같은 외계인은 우리처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17. ‘튜링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② 기계가 외모나 목소리에서 인간과 완벽하게 같다면 직접 대면하여 튜링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③ 기계는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 인간이 쉽게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에 대해 척척 대답할 것이다.
- ④ 튜링 테스트는 인간처럼 답변할 수 있는 로봇은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테스트이다.
- ⑤ 생각할 수 있음이 분명한데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계가 있다면 튜링 테스트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의 적절한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18. 윗글의 ㉠~㉣가 <보기>의 (가), (나)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미국의 철학자 존 설은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으로 튜링 테스트를 비판한다. 어떤 방 안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방에는 영어로 된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중국어 답변들이 적혀 있는 수많은 종이 카드들이 비치되어 있다. 방 바깥에서 어떤 중국인이 중국어로 된 질문 하나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방 안의 사람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중국어 질문이 원하는 답변이 적힌 종이 카드를 정확하게 찾아 카드를 방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해 보자. 이 사람은 일종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설은 그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말한다. 중국어 방안의 사람은 글자의 모양만 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처리할 텐데 사람의 이해나 생각은 글자의 의미 또는 내용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① 존 설은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도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겠군.
- ② 존 설은 물질과 정신 상태의 관계에 관한 이론 중 기능론을 받아들이지 않겠군.
- ③ 존 설은 결국 걸으로 드러난 대화와 행동을 보고 생각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셈이군.
- ④ 존 설은 튜링 테스트에서 기계가 질문자의 질문을 아무리 잘 이해해도 질문자는 기계인지 알아맞힐 수 있다고 보고 있군.
- ⑤ 존 설은 튜링 테스트에서 기계는 질문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군.

19.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생각할 수 있는 기계는 모두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기준을 튜링 테스트가 만족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 ② ㉡와 ㉢는 생각할 수 있는 기계만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기준을 튜링 테스트가 만족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 ③ 기계에 감각 기관을 갖추게 하여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면 ㉡가 제기하는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다.
- ④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적인 석탄처럼 원래의 것과 구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도 있다면 ㉢에 대한 답변이 된다.
- ⑤ 사람들은 내부 구조가 같을 때 걸으로 드러난 대화와 행동도 같으리라는 전제에서 다른 존재가 생각하는지 판단하는데 ㉠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의 성은 저(楮)요, 이름은 백(白)이다. 자(字)는 무점(無玷)으로, 회계(會稽) 사람이다. 한(漢)나라 중상시(中常侍) 상방령(尙方令)을 지낸 채륜(蔡倫)의 후예이다.
그가 태어남에 난초꽃 옥탕에서 목욕시키고 흰빛 옥구슬로 어르면서 흰 띠풀을 가지고 꾸렸으므로, 그 빛깔이 반드르르 하였다. / 같은 배에서 난 그의 아우는 전부 열아홉인데, 서

로 간에 모두 친목하여 한순간도 그 순서를 잃는 일이 없었다.
천성이 본디 깨끗하고 조출하니 무인(武人)을 좋아하지 않는 대신, 글하는 선비와 즐겨 노닐었다. 중산(中山)의 모학사(毛學士)가 각별히 맺어진 벗이었으니, 아무 때고 허물없이 가까웠던 지라 아무리 그 얼굴에 다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어 닦는 법이 없었다. 학문을 하여 천지·음양의 이치와 성현(聖賢), 성명(性命)의 근원에 통달하였으며, 제자백가의 글과 이단(異端)·적멸(寂滅)의 교의(教義)에 이르기까지 기록해 적지 않음이 없었으니, 찾아내어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

한(漢)나라가 선비들에게 책문(策問)*을 실시하자, 이에 방정과(方正科)에 응시하여 바야흐로 논변 을 펴 올렸다.
“예로부터 책의 이루어짐은 대개 대쪽을 쪼고 곁하여 흰 비단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둘 다 불편합니다. 신이 비록 대단치는 않사오나 성심으로 대신할까 바라오니, 만일 그 같은 보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게 먹칠하여 주옵소서.”

화제(和帝)가 시험토록 하였는데 과연 기억력이 뛰어나서 백에 하나도 놓침이 없었으며 죽간(竹簡)으로 된 책은 쓰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이에 그를 치하하여 저국공(楮國公)에 백주자사(白州刺史)의 벼슬을 수여하고 만자군(萬字軍)을 다스리게 하니, 바야흐로 그 봉읍(封邑)으로 성씨를 삼았다.

[C] 수부(樹膚), 마두(麻頭), 어망(魚網), O근(O根)*의 네 사람도 함께 아뢰었지만, 모두 그 아뢴 내용만 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 제외당하였다.

이욱고는 장생(長生)의 술법을 배워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좀이 슬지도 않았다. 이레째 되는 날이면 햇볕의 정기를 마시고 티끌을 털어 냈으며, 그 옷을 태우면서 고요히 처하였다.

진(晉)나라의 좌태충(左太冲)이 [제도부(齊都賦)]와 [삼도부(三都賦)]를 지은 것이 있는데, 선생이 한 번 보고는 기록하여 외워 버리니 사람들이 다투어 베끼었다. 그 바람에 비록 평상시에 서로 잘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를 만나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 뒷날 왕우군(王右軍)의 필적을 받으며 천하에 기묘 한 서법의 본보기가 되었다. 양(梁)나라에 벼슬하여 태자인 소통(蕭統)과 더불어서 [고문선(古文選)] 을 엮어 세상에 알렸는가 하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위수(魏收)*와 함께 국사(國史)를 편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수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편견이 공정을 잃었으므로 ‘예사(穢史)’라 일컫고는 사직을 청하며 소작(蘇綽)과 함께 회계의 일이나 살폈으면 좋겠다고 하니, 윤택하는 조서를 내려 주었다. 이에 지출은 붉은빛, 수입은 검정빛으로 전체의 밝힘을 분명하게 한 바, 사람들이 그 재능을 칭찬하였다.

그 후에 진(陳)의 후주(後主)에게 사랑을 받아 매양 총신(寵臣)인 안학사(安學士)의 무리와 어울려 임 춘각(臨春閣)에서 시도 짓고 하였다. / 수(隋)나라 군대가 경구(京口)를 넘어올 제, 진(陳)나라 장군이 밀서를 보내 급하다고 알렸으나 저생이 감추고 봉한 것을 열지 않는 바람에 진나라가 패하고 말았다.

수나라 대업(大業) 연간에는 왕주(王胄), 설도형(薛道衡)과 양제(煬帝)를 섬기면서 함께 정초(庭草) 및 연니(燕泥)에 관한 구절을 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제가 다른 사람이 자기 위에 드러남을 탐탁 히 여기지 않는 바람에 드디어는 소외와 홀대를 당하니, 종이 말듯 처신을 감추고 속으로만 품어 간직 하게 되었다.

당(唐)나라가 일어나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함에, 저생이 본관(本官) 겸 학사(學士)의 자격으로 저수 량(褚遂良), 구양순(歐陽詢) 등과 앞 시대의 일들을 강론하고 정사를 신중히 헤아리고 정하여 이른바 정관(貞觀)의 다스림*에 이르게 하였다.

송(宋)나라가 흥성하면서 염락(濂洛)의 모든 선비들이 똑같이 문명의 다스림을 천명하였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은 바야흐로 [자치통감(資治通鑑)] 을 엮을 때 저생을 해박하고 고상한 군자라 하면서 매번 더불어 자문하였다.

마침 왕형공(王荊公)이 권세를 부리는 차에 [춘추(春秋)]의 가르침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그 책을 일러 망가져 문드러진 정치 문서라 하니, 저생이 옳지 않다고 하자 마침내는 쫓겨나 쓰이지 못하였다.

원(元)나라 초기에 이르러는 본래의 사업에 힘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장사만을 몸애 익혔다. 몸애 돈 꾸러미를 차고 찻집과 술집 등을 드나들면서 분[分]과 리(厘)를 셈해 따지게 되니, 사람들 간에는 비루 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D] 원(元)이 망하고 명(明) 황실에 벼슬하면서 그제야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입게 되었다.

[E] 자손이 아주 많았으니, 어떤 부류는 사씨(史氏)로 대를 이었고, 또 어떤 부류는 시인 집안으로 문벌을 이루었으며, 혹은 선(禪)에 관한 기록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기도 하였다. 등용이 되어 관직에 있던 자는 돈과 곡식의 수효를 맡고, 군무(軍務)에 종사하던 자는 군사적 전공을 기록했다. 그 직업 따라 하는 일에 비록 귀천이 있기는 했지만, 누구도 직책에 소홀하다는 비난은 듣지 않았다. 대부(大夫)가 된 뒤로는 모두가 다 흰 띠를 둘렀다고 한다.

- 이침, [저생전(楮生傳)]

*책문: 정치에 관한 계책을 물어서 답하게 하던 과거(科擧) 과목.

*수부, 마두, 어망, O근: 나무껍질, 삼베 결, 고기 잡는 그물, 미상.

*위수: 남북조 시대 북위(北魏)의 학자.

*예사: 더럽혀진 역사. 혹은 사실(史實)을 왜곡하여 쓴 역사서.

*정관의 다스림: 정관은 당태종의 연호. 명군(明君)이던 당태종의 치세(治世)가 태평성세를 이루었으므로 그 연호를 따서 '정관지치(貞觀之治)'라 일컬음.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물의 행적과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전하고 있다.
- ②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여 인물의 운명을 바꾸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인물의 발화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직접 드러

내고 있다.

- ④ 같은 시간에 벌어진 여러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 간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게 된 계기를 암시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저생전]은 종이를 저생이라는 가상 인물로 만들어, 한(漢)에서 명(明)에 이르는 역사 속 인물로 형상화한 고려의 가전(假傳)이다. 종이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대마다 저생이 능란하게 처세한 내용을 관리의 생애로 표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저생의 생애는 상승기와 하강기의 반복적 구조 가운데, 시대에 따라 공을 쌓거나 화를 입기도 하며, 벼슬에 나아가 등용되거나 직언(直言)으로 인해 배척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 ① 한나라 때 저생이 '방정과에 응시' 하는 것은, 저생의 생애를 관리의 생애로 표현하여 서술하는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
- ② 한나라 때 저생이 '저국공에 백주자사'가 된 것은, 저생이 등용되는 상승기의 초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
- ③ 양나라 때 저생이 벼슬을 하여 '[고문선]을 엮어' 알리고, '국사를 편수'하고, '회계의 일'을 본 것은, 저생이 공을 쌓는 상승기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
- ④ 수나라 때 '소외와 홀대를 당하'거나, 송나라 때 '쫓겨나 쓰이지 못하'게 된 것은, 저생이 배척당하는 하강기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
- ⑤ 원나라 때 저생이 '본래의 사업'보다 '장사'를 익히고 '분과 리를 셈'한 것은, 저생이 관리로서 능란하게 처세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

22.<보기>를 참고하여 [A]-[E]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전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열전의 형식을 따르는 문학 갈래로, '서두(序頭)-선계(先系)-사적(事蹟)-종말(終末)-후계(後系)'를 기본 요소로 삼고, 서술자의 평결(評結)을 덧붙이는 형식을 보인다. '서두'는 주인공의 신원을 소개하는 부분이며, '선계'는 주인공 선조의 계보를 밝히는 부분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중심이 된다. '사적'은 주인공의 업적을 다루는 부분으로, 대개 정치적 인 행적을 중심으로 한다. '종말'은 주인공의 죽음이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노후를 보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후계'는 자손의 사적을 밝히는 부분이며, '평결'은 주인공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다. [저생전] 역시 이러한 가전의 기본 요소를 고려하여 감상할 수 있다.

- ① [A]: 주인공의 성명, 출신 등 주인공의 신원을 밝히고 있어 '서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 ② [B]: 주인공의 선조에 대한 평가를 보이고 있어 ‘선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C]: 주인공의 업적과 정치적 행적 등을 밝히고 있어 ‘사적’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D]: 주인공이 명나라에서 벼슬한 행적만 밝히고 있어 ‘종말’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E]: 주인공 자손의 행적을 밝히고 있어 ‘후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기, 즉 공기는 그 자체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해수면에서 우주가 시작되는 높이까지 제공인치당 공기의 무게는 14.7lb* 정도이며, 이를 활용해 표준 대기 조건에서 해수면의 대기 압력을 14.7psi*라고 표시한다. 대기의 압력과 온도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는데, 특히 대기의 압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체내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간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항공기의 실내는 반드시 인간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압력으로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항공기의 ‘여압’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조종실과 객실에 여압을 실시한다.

항공기에서 여압을 실시할 때에는 ‘객실 고도’, ‘객실 차압’, ‘객실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 객실 고도란 객실 내의 압력을 고도로 표시한 것으로, 항공기 객실의 압력이 표준 대기 조건의 대기압과 같은 지점의 고도로 나타낸다. 즉 객실 내 압력이 10.92psi인 경우, 객실 고도는 표준 대기 조건의 대기압이 10.92psi가 되는 8,000ft*가 된다. 다음으로 객실 차압은 항공기 객실 내부의 압력과 외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객실 차압은 기체 구조의 강도, ㉡항공기의 최대 비행 고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객실 상승률은 객실 고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1분당 변화하는 객실 고도의 피트 수로 표현한다.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항공기는 여압을 위해 엔진의 압축기에서 공급된 ‘블리드 공기’와 항공기 외부의 공기를 혼합해 사용한다. 고도가 높으면 항공기 외부 공기의 온도와 압력이 낮아 이것만으로 여압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과 온도가 높은 블리드 공기를 사용한다. 하지만 엔진의 압축기는 연료를 연소시킬 때 필요한 고압의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이므로, 블리드 공기를 많이 사용할 경우 엔진 추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블리드 공기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넓은 객실에 대량의 여압용 공기를 공급해야 하는 중대형 제트 항공기의 경우 ‘터보 컴프레서’를 설치한다. 블리드 공기가 터보 컴프레서에 설치된 터빈을 돌리면, 터빈은 같은 축에 연결된 터보 컴프레서의 압축기를 구동시킨다. 그러면 이 압축기에 의해 항공기 외부에서 유입되어 압축된 공기와, 터빈을 거친 블리드 공기가 혼합되어 여압용 공기로 공급된다.

항공기에서는 객실 내 기압이 최소한 대기압과 같거나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압력과 온도가 조절된 여압용

공기를 객실에 공급한다. 항공기는 객실 내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지만 기체 내외부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여압용 공기는 필요 압력보다 약간 높은 압력까지 공급한 후 일정 비율로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여 객실 압력을 조절한다. 또 급격한 압력 변화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압용 공기는 일정한 압력 상승률로 공급된다. 민간 항공기에서는 객실 고도가 8,000ft 이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도 8,000ft 이상의 대기압에서는 인간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고도가 8,000ft 이하일 때는 객실에 별도의 여압을 실시하지 않지만, 항공기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에는 적절한 객실 상승률을 유지해 승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여압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체 구조가 외부 대기압과 객실 압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압력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객실 차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체를 튼튼한 재료로 만들면 되지만 무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객실 고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항공기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 하중을 견디도록 항공기를 설계해야 하며, 이는 기체 구조 강도에 따라 항공기의 최대 비행 고도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실 압력은 조종실의 객실 압력 제어기에 의해 조절된다. 객실 압력 제어기를 통해 객실 고도, 객실 상승률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입력된 설정값에 따라 객실에 공급되는 여압용 공기의 양과, 감압 밸브로 빠져나가는 객실 내 공기의 양이 조절된다. 고고도*에서는 보통 객실과 외부 대기와의 객실 차압을 가급적 크게 유지하여 여압 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8,000ft 이하로 하강하는 동안 여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항공기가 하강하는 경우 감압 밸브를 서서히 열어 여압용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조절하며, 항공기가 지상에 착륙하거나 머무르는 경우 감압 밸브가 완전히 열려 외부 공기가 들어오도록 한다. 통상적으로 민간 항공기는 2개의 감압 밸브를 설치하거나 1개의 감압 밸브에 복수의 회로를 설치해 여압 조절의 안정성을 높인다.

* lb: 파운드, 약 454g.

* psi: 압력의 단위. 1제곱인치당 파운드.

* ft: 피트, 30.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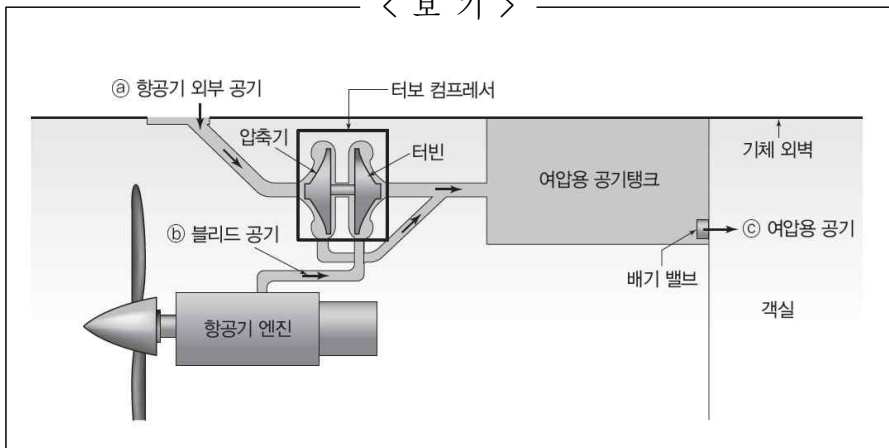
* 추력: 프로펠러의 회전 또는 분사 가스의 반동에 의하여 생기는 추진력.

* 고고도: 지상(地上)으로부터 7~12km의 높이.

23.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객실의 여압은 대기압과 같거나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항공기의 여러 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체 내외부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
- ③ 항공기가 지상에 머무르면 감압 밸브가 열려 외부 공기가 항공기로 유입된다.
- ④ 민간 항공기의 경우 안정적인 여압을 위해 복수의 감압 밸브를 설치하기도 한다.
- ⑤ 객실 내 압력이 10.92psi 미만으로 유지되어야만 승객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24. [가]와 관련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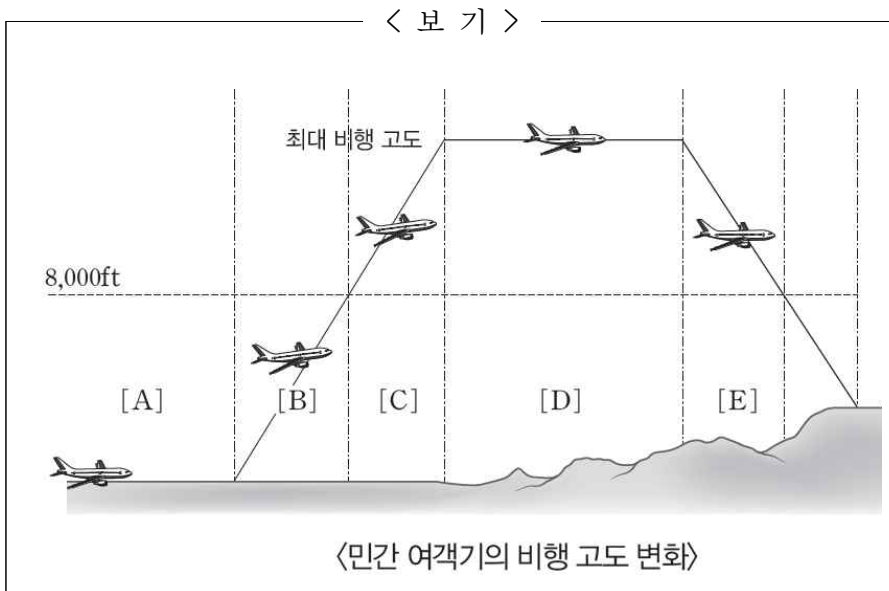


- ① 항공기 고도가 높을수록 ㉠의 온도와 압력도 낮아진다.
- ② 엔진 추력 저하를 방지하려면 ㉡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 ③ ㉡의 공급량을 줄이려면 ㉠의 흡입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 ④ ㉡가 터보 컴프레서로 이동하지 않으면 ㉢을 공급할 수 없다.
- ⑤ 8,000ft 이상의 고도에서는 ㉢의 온도와 압력이 ㉠에 비해 높다.

25. ㉠과 ㉢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면 ㉢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 ② ㉢은 ㉠과 관계없이 항공기 기체 구조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
- ③ ㉠의 변화율과 비례하여 항공기가 ㉢에 도달하는 시간이 결정된다.
- ④ 항공기 기체의 구조가 ㉠을 견딜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이 결정된다.
- ⑤ ㉢을 향상시키려면 ㉠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체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26. 윗글을 읽고, <보기>의 [A]~[E]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비행기가 이동할 때에는 감압 밸브가 열려 있어 객실 기압이 대기압 상태로 유지된다.
- ② [B]에서는 여압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의 고도 변화에 관계없이 승객들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 ③ [C]에서 비행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객실로 유입되는 여압용 공기의 양을 늘려야만 한다.
- ④ [D]에서 비행기가 최대 비행 고도에서 비행하게 되면 외부 대기압과 객실 압력 간의 차이가 최대가 된다.
- ⑤ [E]에서 비행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경우 감압 밸브가 서서히 열리며 여압용 공기가 일정한 비율로 기체 외부로 빠져나간다.

[27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오고 나니 기험(奇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 아하하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삼수갑산 멀드라 아하 축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불귀(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넌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귀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 김소월, [삼수갑산(三水甲山)] -
 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次岸曙先生三水甲山韻)

*축도지난: 축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됨.

(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뒷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 장터]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색채어의 대비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미완결의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며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가)는 영탄적 표현을,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통해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의 화자는 시적 공간의 유희적 특성을 부각하여 고향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화자가 놓인 삼수갑산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데, 화자는 자조적인 어조를 통해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시적 공간의 개방적 특성을 부각하여 떠돌이가 되어 끊임없이 길 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걸어가는 길은 영원한 안주와 정착이 불가능한 화자 자신의 삶을 상징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순응하면서 달관의 자세로 고달픈 현실을 벗어나려 한다.

- ① ㉠은 ‘물’과 ‘산’의 심상을 결합하여 고향에서 ‘삼수갑산’에 이르는 길의 물리적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고향에 갈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암시하고 있군.
- ② ㉡은 자신을 ‘삼수갑산’에 가두어 둔 야속한 ‘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냄으로써, 타향살이를 강요당하는 화자 자신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군.
- ③ ㉢은 마지막 행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와의 결합을 통해, 삼수갑산을 벗어날 수 없는 유희의 공간으로 여기는 화자의 자조적인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은 ‘뱃길이라 서울 사흘’과 ‘아흐레 나흘’의 결합으로 목계 장터의 공간적 속성을 암시함으로써, 특정한 공간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은 ‘맷차거든’과 ‘모질거든’의 감각적 심상을 연결시켜 고달픈 현실을 암시함으로써,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29. <보기>의 [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료 1]

현대시 중에는 민요의 전통적 율격과 표현 방식을 계승한 작품들이 있다. 민요는 토속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민중의 생활상과 정서를 드러낸다. 또한 유사한 음이나 음절의 반복, 동일한 시어의 중첩이나 변주, 통사 구조가 유사한 시행을 통한 대구와 대비 등을 활용하여 민중의 애환을 그려 낸다. 또한 민요에는 자신의 고단한 삶을 반영한 하층민의 신세 한탄과 원망이 담겨 있는데, 이를 계승한 현대시는 내용과 형식 모두 민요의 특징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거나 잊힌 존재로 남아 있던 민중을 우리의 눈앞에 소환한다.

[자료 2]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 나 날 적에 남도 나고 / 세상 인간 같지 않아 / 이놈 팔자 무슨 일로 지게 목발 못 면하고 / 어떤 사람 팔자 좋아 / 고대광실 높은 집에 / 사모에 풍경 달고 만석록*을 누리건만 / 이놈 팔자 어이하야 /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 남의 집도 못 면하고 죽자 하니 청춘이요 / 사자 하니 고생이라 / 세상사 살아진들 / 치마 찢른 계집 있나 다박머리 자식 있나 / 광 넓은 논이 있나 / 사래 긴 밭이 있나 / 버선짝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 / 털떡신도 짝이 있는데 / 쉐이*같은 내 팔자야 / 자탄한들 무엇하리 한탄한들 무엇하나 / 청천에 저 기력아 / 너도 또한 입을 잃고 / 입 찾아서 가는 건가 더런 놈의 팔자로다 / 이놈의 팔자를 / 언제나 면할꼬 /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어떤 놈이 밥 한술 줄 놈이 있나 / 자 가자 이히후후

- 작자 미상, [초부가(樵夫歌)]

*만석록: 아주 많은 녹봉.

*쌨이: ‘키’의 방언. 곡식 따위를 까불러 쪼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 ① [자료 2]는 4음보의 율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4음보 율격을 주조로 하면서 변형을 주며 민요의 전통적 율격을 계승하고 있군.
- ② [자료 2]는 ‘~ 있나’의 반복을 통한 열거와 대구의 방식으로, (나)는 ‘~은 날더러 ~이 되라 하네’라는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민중의 삶과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군.
- ③ [자료 2]는 ‘지게 목발’로 ‘오늘도 이 짐을 안지고 가면’ 안되는 삶의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장터를 다니며 ‘서러운 방물장수’로 살아가는 하층민의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자료 2]는 ‘고대광실’, ‘만석록’과 대비되는 화자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하는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자료 2]는 ‘버선짝’, ‘토시짝’, ‘털떡신’ 등 생활상을 반영한 어휘를 통해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고 있고, (나)는 ‘민물 새우 꿍어 넘는 토방 텃마루’ 등 토속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어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민중의 삶을 떠올리게 하고 있군.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은 다수 가치로서의 법질서와 소수의 양심이 충돌할 경우, 개인의 윤리적 양심을 보호함으로써 인격의 정체성을 지켜 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민주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 질서는 국가 구성원 다수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 내심(內心)의 자유로서 모든 자유의 근원적 성격을 지니는데 여기에서 양심은 일정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기초하여 형성된 선과 악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말하며, 개인의 인격 형성과 관계없는 단순한 사유나 의견은 양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양심은 내면 영역과 외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라 양심의 자유는 내면 영역에서의 ‘양심 형성의 자유’와 외부 영역에서의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먼저 ‘양심 형성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말한다. 올바른 양심 형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심의 주체가 자율적인 양심 형성을 위협하는 각종 영향력의 행사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국가가 특정한 양심이나 사상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강요하거나 양심상 결정에 위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양심 형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이나 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은 양심 형성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양심 형성은 내심 영역의 자유로서 지극히 주관적 현상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심 형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실질적 의미가 적다.

‘양심 표명의 자유’는 형성된 양심을 방해받지 않고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양심 표명의 자유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의 생각만이 언제나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양심 표명의 자유에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이는 형성된 양심을 타의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작위에 의한 것과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를 말하고,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양심을 가진 자들이 각자의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적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심상의 결정이 조정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굴절되는 순간 이 결정은 더 이상 양심에 근거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심상의 이유로 환경 침해자들의 출판물을 인쇄하기를 거부하는 근로자가 인쇄 업무를 반으로 줄여 준다고 해서 거부 의사를 철회한다면 이는 더 이상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 결정된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30.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양심의 자유는 어떤 하위 범주로 나누어지는가?
- ②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가?
- ③ 국가에 의한 종교의 강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④ 양심의 자유는 헌법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보장되는가?
- ⑤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3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양심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근원적 성격을 지닌다.
- ② 양심 형성의 자유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 ③ 모두가 각자의 양심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
- ④ 누구나 자신의 양심을 자유롭게 표명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⑤ 양심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에 의해 형성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된 사건에서 OO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면서 갑이 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갑에게 ‘사죄 광고’를 명하였다. 여기에서 사죄 광고란 사과 내용이 담긴 글을 신문에 게재하도록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만들어 강제로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OO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갑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사죄 표시는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 될 때 가능한데,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심에 없는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① OO법원의 판결은 특정한 사상을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OO법원의 판결은 형성된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침묵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OO법원의 판결은 다수의 생각이 언제나 타당하지만은 않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소수의 양심을 배려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를 하는 행위를 양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여긴 것이겠군.
- 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라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군.

33. ㉠을 나타내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사가 양심상의 이유로 환자 정보를 노출하기를 거부할 때, 이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② 양심상의 이유로 전통 미술품의 판매를 거부할 때, 비용을 두 배로 지불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 ③ 연예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특정 기업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거부할 때, 목소리만 나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 ④ 어떤 대상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양심상의 이유로 거부할 때, 서면으로 서약을 받고 구두로는 맹세하게 하지 않는다.
- ⑤ 기자가 양심상의 이유로 제보자를 노출하기를 거부할 때,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중풍으로 쓰러졌던 병력이 있는 ‘나’의 아버지는 유일한 수입원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한다. ‘나’는 아버지의 잔심부름꾼으로 시장통 도매상을 같이 종종 다녔는데, 어느 날 도매상에서 스무 병이 와야 할 술병이 열여덟 병만 왔음을 알게 된다. 도매상인 흑부리 영감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지만 사정을 봐주지 않자,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의 눈을 속여 소주 두 병을 미리 넣어 놓았다가 들킬 위기에 처한다.

결국 흑부리 영감은 두 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냈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예, 맞아요. 그건 말예요, 제가 영감님 몰래 넣은 건데요…… 왜냐하면 접때접때 우리 집에서 사실 두 병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 응, 쌤쌤이어서요…….

㉠나는 이상하게도 맘이 편하고 당당했다. 나도 모르게 입가로 번져 나온 미소를 단속하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몇 번인가 틀어막기도 했다. 흑부리 영감은 얼굴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일단 직접적 책임을 모면한 아버지는 해설픈 표정으로 날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흑부리 영감이 당신과는 이제 거래 끝이야 하고 선언할까봐 전전궁궁하는 얼굴 이었다. 아버지처럼 이북 출신인 그 영감은 시장통에서 신용 하나는 보증 수표나 다름없었지만 성질이 불같고 매물차기로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기에 그런 상황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내레 이까짓 걸루다 당신하고 거래를 끊지는 않겠어. 다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저지른 짓인데 으잉?

아유, 고맙습네다 영감님. 그저 어떻게 해해……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민한 애가 아닌데 어찌 다…….

단…….

흑부리 영감이 아버지의 말끝을 가로챘다.

내 앞에서 저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는 꼴을 뵈 주라우. 내가

그깟 술 두 병이 아까워서 기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기렇게 따끔하게 가르치는 건 바로 자식에게 말이야, 부모 된 도리를 다 하는 것 아니겠습매? 내 이 자리서 이녁이 하는 감냥을 두고 보고서리 까짓것 그 술 두 병은 거저라두 주겠어. 내 이제껏 남한테 콩알 반쫓가리도 거저 준 적은 없지만서두, 이건 경우가 다르다우 아암.

호되게라든 …… 어머케?

쫘쫘, 이녁도 함경도 아바이 출신이든 부랄값도 못 하는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드러케 다루는지는 알 만하잖소? 그걸 왜 내게 묻소 으응? 아 안 그렇소?

야! 간나야, 니 다시는 이런 민한 짓이래, 하겠니, 안 하겠니? 어서 말 좀 해 보라우.

㉢짐짓 호령을 하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허공 높이 허우적거렸다. 단 한 대에 내 뺨은 무섭게 부풀어 오르며 감각을 잃어 갔다.

길티…… 기게 바로 진짜 교육이야.

㉣흑부리 영감의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굽신거린 다음 또 한 차례 내 뺨을 기세 좋게 올려붙였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뿐이었다. 그러곤 투시해 버리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괴어 있는 눈물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중략)

㉥수도상회 안에 가득 쟁여 있는 물건들이 무방비 상태로 가지런히 놓인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속에서 뭔가가 지글 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터였다. 나는 내가 생각해 봐도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침착했다. 조금만 무슨 일이 닥쳐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 두근하는 새가슴이었지만 웬일인지 가슴조차 평온한 맥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흑부리 영감이 허구한 날 깔고 앉는 알팍한 꽃무늬 방석을 집어 올렸다. 그리고는 방석을 덮어씌운 채 병따개를 이용해 진로소주는 물론이고 이상하게 생긴 양주병 마개들을 소리 나지 않게 따거나 비튼 다음 진열장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부어댔다. 그렇게 한 십 분간 소리 나지 않게 돌아다닌 것으로 수도상회 물건의 대부분이 절단이 났다. 이제는 다시 도망쳐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웬지 성이 차지 않았다. 아랫배에서는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 나는 진열대에 발을 올려놓고 대들보에 매달려 있는 ‘수도상회’ 라고 쓰인 한글 간판을 끄집어 내렸다. 그 간판은 흑부리 영감이 월남을 하기 전에 자신의 고향에서 역시 대물림으로 벌이던 잡화점을 꾸릴 때 쓰던 전통 있는 간판이라는 말을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영감탱이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은 다 작살을 내야만 했다. 나는 떼어 낸 간판을 하수구 안으로 깊숙이 내던졌다.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뽀개 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자면 그 소리 때문에 영감탱이네 식구가 잠을 깰지도 몰랐다.

막 돌아서려는 내 눈에 흑부리 영감이 만날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사는 시커먼 돈궤가 들어왔다. 물론 당일 벌어들이는 그

안의 돈들은 이미 영감이 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텅텅 비어 있었다. 나는 꾸르륵거리는 아랫배를 움켜쥐고 그 궤 쪽으로 다가섰다. 그러고는 한동안 참았던 굶직한 대변을 그 위에 질펀하게 싸질렀다. 하수구 냄새 때문에 잠깐 감각을 잃었던 내 코였지만 어린애답지 않게 굶게 늘어진 똥줄기에서는 몹시 구린 냄새가 진동했다.

하수구를 되짚어 나와 학교 뒷문 개구멍을 통해 수위 아저씨들이 가끔씩 사용하는 비품 창고 안으로 들어 간 나는 세면대에서 몸을 대충 씻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수도가에서 계속 비누칠을 해 대며 살갓을 수세미로 뽀뽀 문질렀다. 혹시나 남아 있을 하수구 냄새를 걱정해서였다.

아버지가 내 등딱 소리에 선잠이 달아났는지 부엌 앞 나무 의자에 나와 앉아 담배를 빼물었다.

— 더위를 먹었니?

— ……!

— 중복 되기 전에 인절미라도 해 먹었어야 하는데…… 후유.

— 주무세요, 아버지.

[A] — 내일 비라도 오려나…… 하수구 냄새가 솔솔 코끝을 스치니…….

— ……!

그다음 날부터 시장통이 한바탕 난리를 겪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수도상회가 절단 난 얘기를 주고받았다.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곱살긋게 대하지 못해서 그런지 흑부리 영감이 당한 것에 대해 고소해하는 사람들도 꽤 되었다.

— 물건엔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다는대두. 글썄 어떤 놈 성깔인지 똥이 한 바가지였대 낄낄.

— 뭘 조хват속이런가 잉?

— 그 영감 얼굴이 충격개나 받았는지 축이 가서 말이 아니더라구. 한편으로 그 고린 영감 잘코사니라고, 왜재도 나지만 당하고 나니까 안쓰럽데 거…….

- 김소진, [자전거 도둑]

34. <수도상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나’가 흑부리 영감의 처사에 대해 품었던 반감을 분탕질로 이어 간다는 점에서, ‘나’에게는 복수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 ‘나’가 흑부리 영감에게 수모를 당한 후 극복할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나’가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 ‘나’와 아버지에게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흑부리 영감에게 거래 관계의 우위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 시장통 사람들이 흑부리 영감의 평소 행실과 성품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 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간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5. [A]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행한 분탕질을 들킨 것이 아닐까 하여 흠칫 놀라는 얼굴 표정을 담아내야겠어.
- ② 아버지 역할의 배우에게 미안함이 담긴 말투로 연기하도록 요구하여, 더위에 지친 아들을 잘 먹이지 못하는 형편을 드러내도록 해야겠어.
- ③ 여러 명의 인물이 곳곳에 모여서 수군거리는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 주어, 이 사건의 특이성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부각해야겠어.
- ④ 시장통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굴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흑부리 영감의 회상 장면을 추가하여,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암시해 주어야겠어.
- ⑤ 흑부리 영감이 기운 없이 늘어져 있는 장면을 추가하여, 사람들의 대화 장면 속에 오버랩하면 좋겠어.

36. <보기>를 바탕으로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나’는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추레한 아버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작가는 회상을 서술하는 방식을 동원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유년 시절에 얻은 내면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나’의 과거를 드러낸다. 장면을 극적으로 재구성한 이 회상은 ‘나’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채 보존되어 있던 상처를 불러내어 이를 다시 경험하게 하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게 한다.

- ① ㉠: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양을 자처하는 어린 ‘나’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후 사건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음을 독자가 짐작하는데 도움을 주겠군.
- ② ㉡: 아들의 마음보다 흑부리 영감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한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가난하고 궁핍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주겠군.
- ③ ㉢: 아버지에게 맞았던 장면을 극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고통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나’가 성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의식적으로 재경험하는 것을 환기하고 있군.
- ④ ㉣: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아버지의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어 주지 않았던 아버지 에 대한 원망이 상처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 ‘나’의 과거 기억이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유년 시절의 상처가 여전히 자신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는 것이겠군.

37. <보기>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나’가 밤에 몰래 ‘수도상회’에 가서 분탕질하는 장면은 현장감 있는 묘사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감각을 동원한 표현이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표현, 과격한 표현 등을 통해 인물의 인식과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봅시다.

- ① ‘나’가 ‘속에서 뭔가가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다는 설정은 내면의 분노를 드러내는 동시에 또 다른 행동을 계획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 ② ‘한 십 분간 소리 나지 않게 돌아다닌’ ‘나’의 행동 묘사는 긴장감 있는 현장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군.
- ③ ‘왓지 성이 차지 않’은 ‘나’의 배에서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는 술병의 술을 부어 대는 행동으로도 복수가 미진하다고 느끼는 ‘나’의 심리 상태와 연결될 수 있겠군.
- ④ 영감이 소중하게 여기는 수도상회 간판을 ‘작살’내고 ‘뽀개 버리고’ 싶다는 과격한 표현은 인물의 내면에 자리 잡은 상처와 관련된 것이겠군.
- ⑤ ‘몹시 구린 냄새’로 표현된 ‘나’의 배설은 흑부리 영감에 대한 복수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자괴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후각적 감각으로 드러낸 것이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레이더는 접시 모양이나 평판 모양의 안테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가 목표물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목표물의 거리, 각도, 형태 등의 정보를 얻는 장치를 말한다. 현재 비행기에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레이더들은 ㉠기계식 레이더로, 기수 부분에 있는 접시나 평판 모양의 안테나가 기계식 장치에 의해 회전하면서 전자파를 주사하고 수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좁은 기수 부분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는 구조적, 기계적 한계로 인해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식 레이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개발, 보급되고 있는 것이 ㉡AESA 레이더, 즉 능동 전자 주사 레이더이다.

AESA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와 같이 기수 부분에 있는 평판을 통해 전자파를 발신하고 수신하지만 회전하지 않는 평판에 전자 모듈(TRM)을 장착하여, 전자파의 세기와 방향 등을 전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레이더이다. 이 레이더는 크게 AESA 안테나 장치, RF 처리 장치, 냉각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AESA 안테나 장치에는 전자파 송수신 고밀도 집적 장치인 TRM이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1,000개 이상 배열되어 있다. TRM은 탐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전자파의 방향, 파장, 세기 등을 전자적으로 제어하여 주사 하는 장치로, 기계식 레이더가 전자파를 한 방향으로 주사하는 것과 달리 TRM의 일부 혹은 전체를 서로 다른 방향과 세기, 파장으로 주사할 수 있다. 또 TRM은 반

사된 전자파를 수신한 후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훨씬 간단한 경로로 RF 처리 장치에 전달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RF 처리 장치는 주사하고자 하는 전자파의 파장, 방향, 세기 등의 정보를 신호로 처리해 AESA 안테나 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RF 처리 장치에서는 공중, 지상, 해상 또는 두 개 이상의 영역에 TRM이 전자파를 어떤 방향과 세기로 주사할 것인지를 신호로 전달한다. 아울러 TRM에서 수신된 전자파를 분석해 필요 없는 정보나 노이즈를 제거하고 유의미한 정보만을 선별한다. 마지막으로 냉각 장치는 TRM에서 발생 하는 열을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기계식 레이더의 경우 TRM이 없어 공랭식 냉각 장치를 사용하지만, AESA 레이더는 TRM과 전원 공급 장치에서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더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액체 형태의 유체를 순환시켜 냉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AESA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기계식 레이더의 경우 평판이 모터에 의해 회전하는데 이것이 한 쪽 방향을 비추면 반대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특정 방향을 재탐지하는 데 약 1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AESA 레이더는 TRM에서 전자파를 조절해 약 1/1,000초 정도의 시간에 특정 방향을 재탐지할 수 있어 목표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하다. 또 전자파를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주사하여 다양한 방향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다. 즉 기계식 레이더로는 공중과 지상 또는 공중과 해상을 동시에 탐색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AESA 레이더는 동시에 여러 영역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AESA 레이더는 목표물이 먼 거리에 있는 경우, 비록 다른 대상에 대한 탐지 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TRM에서 주사되는 전자파를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키면 원거리 탐지도 가능하다. 또 강력한 전자파를 집중시켜 상대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발신한 전자파의 신호를 상대가 분석해 추적하지 못하도록 상대의 레이더 전자파 감지 범위보다 약한 세기의 전자파를 발신 하거나 전자파의 주사 간격을 조절해 은밀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AESA 레이더의 장점과 기능으로 인해 최근에는 일부 항공기와 해군 함정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가 AESA 레이더로 교체되고 있다. 그리고 발열이 심하고 고가인 TRM의 소재에 대한 연구와 좁은 기수 부분에 TRM을 효율적으로 배열하고 집적도를 높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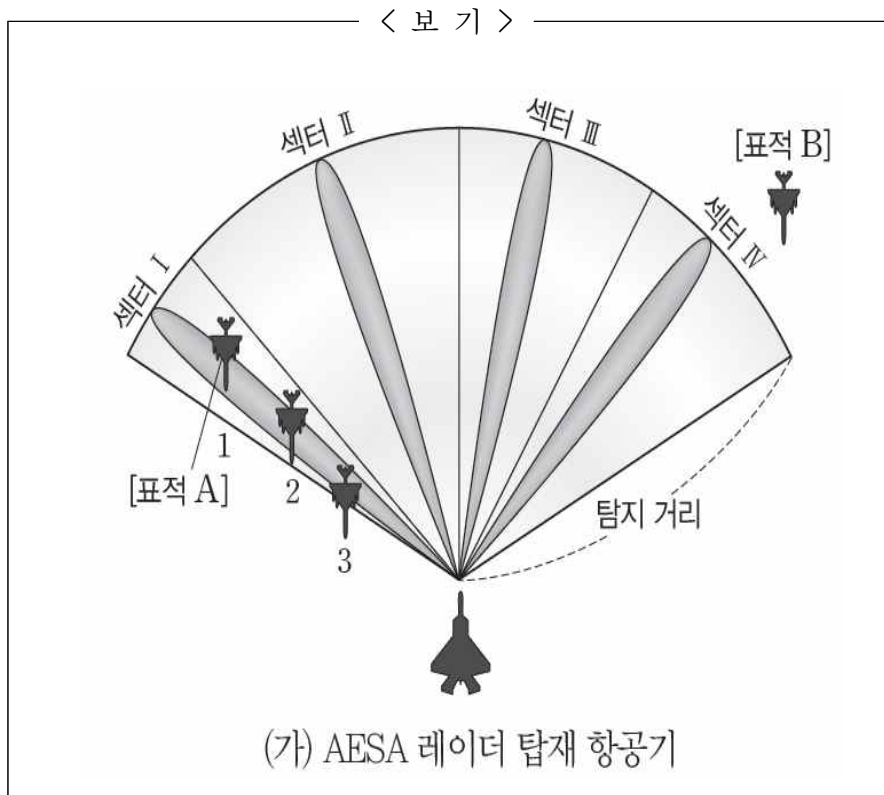
3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AESA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 ② 기계식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하는 안테나가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
- ③ AESA 레이더의 구성 요소인 TRM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④ 최근 일부 항공기와 함정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가 AESA 레이더로 교체되고 있다.
- ⑤ AESA 레이더의 RF 처리 장치는 수신된 전자파를 분석해 정보를 선별하는 기능을 한다.

39. ㉠,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에 비해 공중과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는 것이 어렵다.
- ② ㉡은 ㉠과 달리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재탐지하여 수집할 수 있다.
- ③ ㉡은 ㉠에 비해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액체 형태의 유체를 냉각 장치에 활용한다.
- ④ ㉠, ㉡은 모두 비행기 기수 부분의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성능에 제약을 받는다.
- ⑤ ㉠, ㉡은 모두 발신된 전자파가 목표물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목표물을 탐지 한다.

40. 윗글을 읽고, <보기>의 (가)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TRM에서 주사되는 전자파의 방향을 조절하면 섹터 I~IV에 있는 공중과 지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다.
- ② (가)가 [표적 A]의 레이더파 감지 능력 이하의 세기로 전자파를 발신할 경우, [표적 A]가 (가)로 접근하더라도 (가)의 위치를 탐지하지 못할 수 있다.
- ③ [표적 A]가 섹터 I의 1에서 3으로 접근할 경우, (가)는 TRM에서 주사되는 전자파의 일부를 섹터 I에 집중하여 [표적 A]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 ④ 섹터 I~IV를 탐색하고 있던 (가)가 섹터 I~IV보다 먼 거리에 있는 [표적 B]를 탐지하기 위해 전자파를 집중시켜도 섹터 I~III에 대한 탐지 능력은 이전과 차이가 없다.
- ⑤ [표적 A]에 일부 TRM에서 주사되는 전자파를 할당하고, 나머지 TRM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전자파를 주사할 경우 섹터 II~IV에 대한 탐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41. 윗글을 읽고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최근 전투기에 AESA 레이더가 탑재되기 시작되면서,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조작에 익숙했던 조종사들에 대한 AESA 레이더 활용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기계식 레이더를 운용하던 조종사들이 AESA 레이더의 우수성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AESA 레이더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를 운용하며 경험해 보지 못한 레이더 운용 방법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AESA 레이더를 운용하게 될 조종사들에게는 _____,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① 전자파를 발신하는 레이더의 평판이 지속적으로 목표물을 향하도록 하는
- ② 레이더의 TRM과 전원 공급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냉각하는
- ③ 목표물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레이더에서 주사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 ④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은 채 여러 영역에 있는 원거리 목표물들을 동시에 탐색하는
- ⑤ 레이더에서 주사되는 전자파를 목적에 맞게 할당하고 전자파의 방향과 세기를 제어하는

[42~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나)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 가는 어둔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웁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안고 웃어 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 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 꿈을 받아라

- 정호승,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4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표현의 반복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의인화된 소재, (나)는 우의적 소재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명령형, (나)는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대상에게 특정 행동에의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43.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신생의 시간인 ‘새벽’은 ‘별을 보고 걷어가는 야’하는 존재와 연결되어, 능동적으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환기하고 있다.
- ② 2연: ‘눈 오는 밤’의 시간적 배경과 ‘돌아갈 길’이 없는 상황을 결합하여, ‘어둔 방’으로 표상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3연: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 세상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다고 여기는 화자의 비극적인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3연: ‘기다림’과 ‘그리움’의 대상을 만나 실컷 웃고 우는 장면을 환기하여,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다.
- ⑤ 4연: ‘봄눈’의 소멸 이미지와 ‘보리밭길’의 생성 이미지를 대비시켜, ‘가슴 가득히 / 꿈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느꼈을 심리

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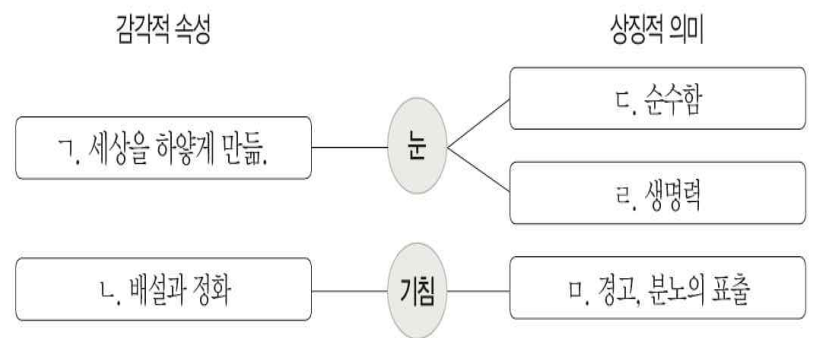
44. <보기>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의 창작 배경]

이 시의 창작 당시에는 언론을 통한 사회 비판이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시인은 이러 한 독재 정권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가 도래해야 한다는 양심의 목소리와 예언자적인 전망을 노래하였다.

[탐구 과제] (가)의 ‘눈’과 ‘기침’의 속성과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 보자.



- ① ‘눈’이 지닌 ㄱ의 속성과 ㄹ의 의미를 연결시켜 볼 때, ‘눈은 살아 있다’는 독재 정권의 광포 한 현실에 대해 화자가 품고 있는 두려움을 떠올리게 한다.
- ② ‘눈’이 지닌 ㄱ의 속성과 ‘기침’이 지닌 ㅁ의 의미를 연결시켜 볼 때, ‘기침을 하자’는 ‘젊은 시인’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세상에 마음껏 펼쳐 내야 한다는 비판적인 지성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 ③ ‘기침’이 지닌 ㄴ의 속성과 ‘눈’이 지닌 ㄷ의 의미를 연결시켜 볼 때,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순한 시대의 상황에서 ‘젊은 시인’이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암시한다.
- ④ ‘기침’이 지닌 ㄴ의 속성과 ㅁ의 의미를 연결시켜 볼 때, ‘눈 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는 양심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순수의 표상인 ‘눈’이 양심을 판단하는 준거가 됨을 보여 준다.
- ⑤ ‘눈’이 지닌 ㄷ과 ㄹ의 의미를 연결시켜 볼 때, ‘새벽이 지나도록’은 고통의 현실을 이겨 낼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순수한 존재들이 맞이할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떠올리게 한다.

* 확인 사항

○ 본 시험 문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